



농협금융, 한가위 맞아 '사랑의 헝살' 나눔

농협금융이 경기도 성남시 보훈회관에서 한가위 맞아 '사랑의 헝살 나눔'을 실시했다. 정재영 판교낙생농협 조합장(왼쪽부터), 김용기 무공수훈자회 성남시지회 회장, 송병조 상이군경회 성남지회 회장, 손병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NH농협금융지주



우리금융, 근대5종 국제 전용대 선수 후원 협약

우리금융그룹은 도쿄올림픽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근대5종 국제대표 전용대 선수의 후원 협약을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오른쪽)이 전용대 선수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금융그룹



신한금융, 지적장애인 대상 금융사기예방 교육

신한금융그룹이 경찰청과 함께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금융사기예방 교육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교육은 코로나19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10명 내외의 소수 인원을 대상으로 회차를 나눠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신한금융



현대중공업1%나눔재단 보호종료아동 지원

현대중공업그룹1%나눔재단은 최근 '희망스케치' 사업을 통해 보호종료아동의 자격취득을 지원하기로 하고, 한국아동복지협회에 2억 4000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현대중공업



홈쇼핑, 홀몸어르신 500명에 명절꾸러미 전달

홈쇼핑은 추석을 맞아 지난 13일 서울 강서구에서 종합복지관을 방문해 홀몸어르신 약 500명에게 명절 식품 행복꾸러미를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홈쇼핑 구기대 사회공헌팀장(오른쪽)이 강서노인종합복지관 임무영 관장에게 행복꾸러미를 전달하고 있다. /홈쇼핑

인사

-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소비자거래실태담당관 황태호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심재식 △디지털조사분석과장 음잔디
- ◆포춘코리아 ◇신임 △대표이사 이훈
- ◆팜캐드 ◇상무 승진 △R&D센터 이성민 신임 상무 △사업개발본부 황진하 신임 상무 ◇이사 승진 △경영지원본부 오현중 신임 이사



**이규성의
전일에 산다**

오랫만에 책을 읽기로 했다. 전염병 이후 인류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해서다. 마침 그럴만한 책이 한권 잡혔다. 이번 추석동안 읽기에 안성맞춤이다. 낡은 책꽂이를 훑어보는 재미도 새롭다. '콜레라는 어떻게 문명을 구했나'라는 번역서다. 십 수년 전에 나온 책이다. 당시 신종플루가 우리 사회를 공포에 휩싸이게 했고 위생과 백신 등 혁신을 위한 논쟁이 치열하게 펼쳐지던 때다. 서문과 발문, 목차를 살폈다. 기억나는 내용은 하나도 없다. 다만 한가지 '질병과 치열하게 싸운 사회일수록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다'는 내용만이 남았을 뿐이다. 그 책은 위생, 백신 등 수많은 혁신이 승패의 열쇠라고 가르치고 있다. 며칠전 부모님이 계신 곳을 다녀

“견디는 게 이기는거다”

왔다. 이번 추석에는 모이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이번 추석 어찌 보내나' 고민스럽다. 명절에 가족과 함께 보내야하는 오랜 관습이 허물어지고 있다는 생각에 맘이 아프다. 어느 사회학자의 말처럼 '코로나 이후 혈연 중심의 연대가 느슨해질 것'이라는 견해가 지금 내게도 증명되고 있는 셈이다. 언택트(비대면)와 재택근무 문화도 더 뚜렷해지고 있다. 결국 나의 언택트방식이 독서로 귀결된 이유다. 고향을 떠나지 40여년 동안 명절에 고향에 가지 않고 부모, 형제들과 지내지 않는다는 걸 상상해본 적이 없다. 지난 설도 그렇지만 갑자기 달라진 환경에 쉽게 적응이 되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나의 연대 한편이 허물어지고 있다고나 할까. '원적산DB손해보험연수원 밤나무숲에 가서 알밤이나 줍자'라고 계획을 하고도 무언가 허전하다. 아무튼 책을 다시 읽기로 하자. 어차피 불안, 걱정, 공포를 측정하는 불가능하다. 애초에 안된다.

그렇다고 코로나19 이전으로 되돌아가기도 어렵다. 노동관계도 변했고, 삶의 연대도 변했다. 단적으로 재택근무하며 명절날 아내와 둘이서 보내는 것이 그렇지 않잖아. 설령 그렇더라도 코로나와 싸우는 동안 우리의 수많은 혁신이 모여 혁명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희망은 있다. 어느 나라든 흉내낼 수 없는 'K방역'을 믿는 편이다. '허기사 그걸 믿지 않는다면 거기부터 절벽일테니...' 신봉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K방역의 성과는 검증된 터니 당연한 노릇이다. 생각이 여기까지 이르러서는 잠시 과거의 나를 돌아보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그리고 또 잠시동안 만나지 못한 지인들을 생각했다. 코로나 때문에 생겨난 여유인건가. 그렇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절박함, 절실함 같은 것이라고 해야 맞다.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벌써 2년여간 날마다 확진자, 사망자 숫자를 보아왔다. 세계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는 광기와 충격도 목

도했다. 요즘에는 백신 접종 현황이나 부작용 사례가 더해졌다. 눈물겨운 인류애와 헌신, 위대한 리더십, 치졸한 욕망도 지켜봤다. 과학의 영역이 정치적 논쟁으로 비화되는 양상도 그렇다. 무엇이 완전한 정답일 수도 없는 정치적 타락도 우리의 몫인 것만은 분명한 코로나시대에 진실은 코로나 이후 더 진전된 세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얼마전 회사의 한 동료는 내게 이런 말을 한 적 있다. "견디는 게 이겨는 거야." 타당한 말이다. 그 말에 우리 삶의 방식은 물론 우리가 치뤄야 할 변화, 혁신이 담겼다는 걸 안다. 그건 누구나 다 안다. 또한 전염병이라는 게 어느날 갑자기 나타났게 아니라 인간의 욕망에서 비롯됐을 수도 있다는 걸 안다. '삶'이 있다고는 하나 그것마저도 지적 암흑일 뿐인 이 상황에서 당당히 맞서기란 쉽지 않다. 가족들과의 연대를 잠시 유보한 이 모든 아픔, 이겨내는 것 말고 답이 있다. /파이낸스&마켓부 선임기자 peace@metroseoul.co.kr

‘여의도순복음 교회 설립자’ 조용기 목사 별세



14일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 대성전 베다니홀에 고(故)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20세기 빛낸 위대한 복음전도자 세계 최대 교회로 기네스북 등재 세계 최대 교회인 여의도순복음교회 설립자인 조용기 원로목사(사진)가 별세했다. 향년 86세. 조목사는 14일 오전 7시13분 서울 연건동 서울대병원에서 눈을 감았다. 조목사는 1936년 경남 울주군(현 울산광역시)에서 한학과 동양 종교에 익숙한 부유한 집안의 5남 4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의 부친이 1950년 5월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했다가 낙선하면서 가세가 기울기도 했다. 6·25 동안으로 인해 부산으로 피난까지 갔던 조목사는 당시 부산 공고에 입학했는데 이 학교에 주둔

그런 중 고교 2학년 때 폐결핵으로 사망선고를 받은 그는 병문안 온 누나의 친구로부터 처음 복음을 접한 뒤 부산에서 미국 오순절교단인 '하나님의성회' 소속 켄 타이슨 선교사를 만났고 폐결핵이 치유되는 경험을 하면서 신학교 입학 결심한다. '20세기를 빛낸 위대한 복음전도자'로 평가받고 있는 고인은 1958년 순복음신학교를 졸업한 뒤 장모이자 목회 동역자가 되는 최자실(1915~1985) 전도사와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서 천막 교회를 세우며 목회를 시작했다. 천막교회로 시작한 여의도순복음교회는 1961년 서대문교회를 거쳐

1973년 여의도순복음교회로 이름을 변경, 한국 교회의 부흥기를 이끌었다. 1958년 1명의 신자로 출발해 오중복음, 삼중축복 등 전도활동을 통해 교인의 폭발적인 성장세로 1993년 교인수 70만명을 돌파하며 세계 최대의 교회로 거듭났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1993년 세계 최대 규모 교회로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다. 고(故) 조용기 목사 빈소는 여의도순복음교회 베다니홀에 마련됐다. 장례예식은 18일 오전 8시 한국교회장으로 여의도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열린다. 유족으로는 장남 희준, 차남 민재 국민일보 회장, 삼남 승제 한세대 이사 등이 있다.

김밥 팔아 전재산 기부한 박춘자 할머니 등 5명 'LG의인상'

LG복지재단, 새 의인 선정 시상

LG가 또다른 영웅을 찾아 감사를 전달했다. LG복지재단은 14일 새로운 LG의인상 수상자 5명을 선정하고 시상했다. 박춘자 할머니는 10살무렵부터 남한산성 길목에서 김밥을 팔아 전재산 6억3000만원을 모두 기부했다. 3억 3000만원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3억원은 장애인 거주시설인 '성남작은예수교회' 건립금으로 쾌척했다. 또 마흔살 무렵부터 40여년간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했으며, 60대에 김밥 장사를



(왼쪽부터) 박춘자 할머니, 최복동 소방위, 김현필 경위, 이하나 씨, 정영화 소방교. /LG

그만 둔 후에는 11명의 지적 장애인들을 집으로 데려와 20여년 간 돌보기도 했다. 지난 5월에는 월셋집 보증금 중 일부인 2000만원까지 기부하고 복지시설로 거처를 옮겼다. 사망후 남은 재산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기부하겠다고 유언도 남겼다. 박 할머니는 "남을 도울 때 가장 즐겁고, 장애인들 도울 땐 있던 걱정도 썩사라진다"고 담담히 소감을 밝혔다.

전남 담양소방서 최복동 소방위는 15년째 휴일마다 폐품을 수집한 수익금으로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도왔다. 농촌 지역에서 근무하며 노인과 조손 가정 등 어려운 이웃을 도울 방법을 고민하며 2006년부터 휴일마다 폐품을 수집해 누적 1억원을 기부했다. 경북포항남부경찰서 김현필 경위는 지난달 8일 야간 근무 중 30대 남성이 실종됐다는 신고를 받고 형상

강 섬안칸다리로 출동했다. 어둠 속에서도 구명환을 끼고 10m 다리 물에 뛰어들어 30대 남성을 구조했다. 이하나 씨는 지난달 4일 전남 완도군 보길도 중리 해수욕장에서 어린이 2명이 조류에 떠밀려가는 것을 보고 50m를 헤엄쳐 구조해냈다. 인명구조자격을 보유하고 어린이수영강사로 근무중인 경력을 활용했다. 대구동부소방서 정영화소방교는 지난달 2일 경북 포항 흥환해수욕장에서 휴가를 보내다 엎드린 채 바다 위에 떠있는 한 남성을 목격하고 구조, 심폐소생술을 통해 위급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게 했다. /김재용 기자 juk@